

## 베르사체(Versace) 디자인에 나타난 색채 특성

- 2000년~2006년 컬렉션을 중심으로 -

###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Versace's Fashion Design - Focused on the Trend of Color Arrangement from 2000 to 2006 -

김수영·김혜수·이연희\*

Kim, Soo Young · Kim, Hyu Soo · Lee, Youn Hee\*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배화여자대학 전통복식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Master's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Baewha Women's University, Dept. of Traditional Korean Costum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color characteristic of Versace and show a new method of research in color analysis. Color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color were analyzed for Versace's 14 collections, from 2000 S/S to 2006 F/W. Using the eyedropper tool in Photoshop(Ver.7.0) the main colors from the Versace Collection were picked and converted to color chips. The resulting RGB color codes were then converted into HV/C color codes by the Munsell Conversion System(Ver. 7.0.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Versace's collection, R group and P group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This seems to be somewhat affected by both Versace's preference for the red color, also by the early 2000s color trend. The proportion of R group is the highest in whole seasons. And the P group and the G group were high in S/S season, whereas Y group was high in F/W season. Second, in general color tones, Vivid & Strong of bright and strong color groups most often used. However, the proportion has decreased since 2005 and only few cases were shown in 2006 because of the affection of the 2006 color trend-black and Gray. Third, Versace's color trends were analyzed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color and with a consideration for Versace's characteristics of color. The vivid colors that Gianni used represents his spirit of adventure and challenge and is helpful in planning today's color of fashion design. Succession of his original intention will affect the progression of the fashion industry.

Key Words : Gianni Versace, color characteristics, Munsell Conversion System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색채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강하게 반응하는 복식 디자인 요소이며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시각적 이미지 전달 도구로서 디자인 분야에서 특히 중요시되고 있다. 패션에서의 색채는 패션 디자인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그 시대의 기호와 문화적 성향을 나타내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것을 창출해낸다. 이러한 색채는 심리적, 물리적, 생리적인 면을 갖는 복잡한 요소로서 착용자의 개성, 기호, 심미안, 문화적인 배경 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의복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색채는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에서의 전달 매체로서 패션의 기획과 마케팅 과정에서 패션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와 같이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색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이러한 색채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패션 디자이너 중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는 전통미의 현대적 재창조라는 패션 철학과 독특한 소재, 화려하고 대담한 색채 표현, 이탈리아 특유의 장인 정신으로 그만의 신화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베르사체 디자인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인식된 것 중의 하나가 화려한 컬러와 프린트인데, 베르사체는 이러한 화려하고 원색적인 컬러의 사용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 세계를 표출하였고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그러나 1997년 지아니 베르사체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현재 베르사체 브랜드는 그의 여동생 도나텔라 베르사체(Donatella Versace)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화려함과 관능미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아니 베르사체의 실험정신과 모험심이 색채에서 잘 표현되었던 베르사체 브랜드가 현재 도나텔라 베르사체에 의해서 어떠한 색채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베르사체 브랜드의 색채 특성을 규명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색채 분석 연구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고찰

### 1. 지아니 베르사체의 디자인 정신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는 이탈리아의 남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네오 클래식즘(Neo Classicism)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는 젊은 세대의 감성을 구체화 할 줄 아는 크리에이터 중의 한 사람으로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솔직하게 자신의 느낌을 표출해 내는 젊은 세대와 호흡을 같이 했다. 또한, 독특하고 기발한 디자인 아이디어로 세계 패션에서 화려하면서도 격조있는 컬러와 디자인으로, 메두사(Medusa) 로고와 철저한 화려함을 앞세워 패션의 신화를 창조한 베르사체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만들었다.)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 출생(1946)인 베르사체는 어머니가 재단사였으며 여동생인 도나텔라와 형제 산토와 함께 회사의 요직에서 일하였다. 베르사체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으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25세의 나이에 밀라노로 이주, 패션과 텍스타일을 공부하였다. 1975년 콤플리스에서 첫 레더 컬렉션을 선보여 본격적인 디자인

너의 길로 들어섰으며, 제니, 칼라강 등과 프레타포르테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였다.2) 1978년 자신의 이름을 건 첫번째 컬렉션을 밀라노에서 열었으며, 이듬해인 1979년에는 첫번째 남성복 컬렉션을 개최하였다. 같은 해에 미 국인 사진작가 리처드 아베돈(Richard Avedon)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컬렉션을 함께 하였다. 이 컬렉션은 베르사 체라는 이름을 일반인들에게 뚜렷하게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3) 베르사체는 여성복을 디자인 한 뒤 세계 곳곳 에 부티크를 설립하고, 오프쿠튀르 라인인 아틀리에(Artlier),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 대중을 위한 라인인 이스탄테(Istante), 남성복의 대중화 라인인 브이 투 바이 베르사체(V2 By Versace), 캐릭터 캐주얼 베르수스 (Versus), 베르사체 마담사이즈 브랜드 베르사틸(Versatile) 등, 액세서리를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를 전개하였다. 액세서리, 가죽, 모피, 향수 등과 발레 의상도 디자인하였다.4) 베르사체는 대중의 눈에 비칠 수많은 인물들에게 옷을 입혔는데, 특히 1990년대에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힌 다이애나 황태자비를 위한 패션 디자인을 함으로써 굉장 히 높은 인지도를 얻었다. 또한 엘리자베스 헐리(Elizabeth Jane Hurley)가 1995년 영화 ‘네번의 결혼식과 한 번 의 장례식’(Four Weddings and a Funeral)의 시사회에서 안전핀으로 이은 노출이 심한 특이한 블랙가운을 창조해 내면서 영국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갈채를 받는 섹시한 의복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5)

하지만, 전 세계 200여 개의 부티크 및 400여 개의 아울렛에서 6,0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던 지아니 베르사체는 아쉽게도 1997년 7월 15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서 동성애 애인에 의해 권총으로 피살되었고, 이 후 베르사체 패션 하우스는 그의 여동생이자 베르사체의 뮤즈인 도나텔라 베르사체(Donatella Versace)에게 이어졌다. 한동안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던 도나텔라는 그 전부터 베르사체의 창의성과 트렌드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던 재능으로 베르사체의 전성기를 이어나가는 것 뿐 만 아니라 창조적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그녀는 디자인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관련 고서와 장서를 수집, 분석해 앞으로의 트렌드와 예술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베르사체 고유의 기존 이미지에 실용성과 세련된 우아함을 부각시 킨 새로운 베르사체를 창출해내고 있다.

## 2. 지아니 베르사체 작품의 복식조형 요소

지아니 베르사체는 메두사를 자신의 브랜드 심볼로 확정했을 만큼 그리스, 로마문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입체 재단을 통한 형태의 재현 뿐 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 및 조각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패러디하는 방법 을 통해 그 시대를 표현하였다.6) 또한, 베르사체의 작품 면면을 보면, 관능미와 우아함이라는 절충되지 않을 듯 한 두 가지 요소가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잘 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타이트한 실루엣과 짧은 스커 트, 대담한 슬릿과 같은 그만의 스타일로 여성들의 성적인 매력을 돋보이도록 표현하였다. 베르사체는 비교적 짧은 20여 년 만에 세계적인 디자이너 브랜드로 유명해졌으며, 간결한 세이프, 세련된 랩핑 및 색채에 대한 탁월 한 센스를 표현하는 크리에이티브 정신이 그 바탕이 되었다.

다음의 내용은 지아니 베르사체 의복의 일반적인 조형성을 알아보고자 정리한 내용이다.

### 1) 형태

지아니 베르사체 디자인의 형태적 특징은 심플한 라인에서 비롯된다. 그 특유의 화려한 컬러와 프린트, 현란 한 자수장식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는 간결한 세이프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에 덧붙여 그는 세련된 랩핑 (wrapping), 균형과 조화에 대한 정확한 감각을 색채에 대한 그의 영감적인 센스와 조화시켜 전체적인 헤드 투 톱(head to toe look)을 창조해냈다 <그림 1>.

베르사체 의복의 '형태'를 살펴보면 균형과 조화에 대한 정확한 감각으로 절묘한 컷팅, 세련된 랩핑으로 노출된 누디즘 스타일, 여성의 인체 곡선미를 강조한 피트 앤 글래머 스타일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누디즘과 피트 앤 글래머 스타일을 결합하여 여성의 형태미를 표현하기 위해 속옷의 겉옷화 즉 데자비에(Deshabille)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베르사체는 대담한 슬릿을 통해 섹시한 이미지를 연출해 낸다 <그림 2> <그림 3>. 베르사체 의복의 '디테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자수와 장식이며, 형태로는 메두사의 머리 형태가 있다. 금사, 은사, 비즈장식들은 그 자체가 옷을 형성하여 인체를 매력적으로 만들며 단순한 표면에 강한 윤곽선을 드러내 준다. 사치스러움이 깃든 베르사체의 작품은 표면장식에 있어 화려한 프린트와 자수, 구슬의 장식으로 더욱 실체화 되었고,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요소로 여성의 관능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그의 스타일은 짧거나 긴 형태로 햄 라인이나 네크라인을 비대칭 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때로는 몸에 피트시키거나 불규칙적인 주름을 활용하며 등쪽이 모두 오픈되거나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부수적인 형태의 변화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심플함과 간결한 라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1991 S/S  
(출처: Gianni Versace, 1998, p.143)



<그림 2> 1986-87 F/W  
(출처: Versace Signature, 1992, p.188)



<그림 3> 1987-88 F/W  
(출처: Versace Signature, 1992, p.197)

## 2) 색채

지아니 베르사체 디자인에서의 색채 경향은 크게 색의 선호와 시대별 색의 사용 및 조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색의 선호에 있어서 그는 검은 색에 대한 꾸준한 선호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색의 사용에 있어서 그는 시대별로 변화는 보이지만, 주로 색의 조화부분에서는 색상대비 및 명도대비에 치중한 경향을 보인다.

베르사체는 검은 색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그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추억의 드레스는 어머니의 부피 끈에서 고개를 뒤덮고 있는 주름을 기억하게 하는 검은 드레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억에 대한 향수는 그로 하여금 더욱 더 정밀한 셰이프를 만들도록 하였으며, 검은 드레스를 그의 모든 컬렉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많은 다양한 스타일이 컬렉션을 통해 발표되었지만, 그의 디자인사에 있어 검은 드레스는 시대에 맞춰 재해석되면서 지속적으로 모든 컬렉션에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되어 왔다.

베르사체의 검은색의 선호와는 별도로, 베르사체의 디자인상의 특징 중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인식된 것 중의 하나는 화려한 컬러와 프린트이다. 다양한 컬러가 어우러지며 여러 가지 무늬를 연출해내는데, 이러한 화려한 원색적인 컬러의 사용을 통해 베르사체는 성적인 매력이 부각되도록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다.<sup>8)</sup>



<그림 4> 1991 F/W  
(출처: Versace, 1997, Universe & Vendome, p.38)



<그림 5> 1994 S/S  
(출처: Versace Signature, 1992, p.31)



<그림 6> 1992 S/S  
(출처: Versace, 1997, Universe & Vendome, p.38)

베르사체의 색채에 대한 강렬한 욕구는 이탈리아 지중해의 환경과 성적 관능미를 혼합하여 표출되었으며, 이는 그의 작품에서 그대로 표현되어 신비스럽고 원색적인 색채로 관능미를 대담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4>. 그는 단순히 색에만 의존하기보다 장신구나 광채를 내는 아이템을 활용해 화려함을 강조했다.<sup>9)</sup> 금으로 수를 놓기도 하고, 금속이나 비즈장식, 핀 등 다양한 종류의 장식물을 사용하여 그 화려함을 극대화 하였다 <그림 5> <그림 6>.

베르사체는 빨강, 선정적인 주홍, 로즈 핑크 등의 열정적인 이미지의 컬러를 사용하고 화려한 순색의 사용과 이질적인 컬러의 대비, 검정색의 신비롭고 관능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 화려한 원색의 사용과 보색대비, 검정색의 단독사용, 사용, 보라색, 노랑색 등으로 주목성을 부각시켜 아방가르드를 표현하였으며, 팝 아트의 현란한 원색의 조화를 패션에 적용시켜 통합예술로서의 의복을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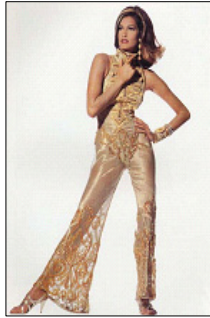
### 3) 소재

베르사체의 의상은 최고급 소재를 사용한 정교한 재단, 완벽한 커팅과 봉제로 평가받는다. 그가 만드는 의상에서 풍겨져 나오는 다소 사치스러운 보이기까지 하는 활력과 우아함은 그가 옷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유래한다. 다양한 소재들을 자신만의 독특한 배합방법을 통해 사용했는데, 그는 어떤 직물이라도 그저 평범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며, 표면에 기하학적인 형태를 새겨 넣거나 다른 여러 장식들을 해보곤 하였다.<sup>10)</sup> 예를 들면, 여러 계절 폭넓게 입을 수 있는 가죽의상을 유행시켰고, 재봉틀로 박을 수 있는 부드럽고 감각적인 금속성 드레스를 선보였으며, 레이저를 이용하여 가죽과 고무를 꿰매는 데 성공하였다 <그림 7> <그림 8>.

그의 장인으로서의 예술성과 테크닉의 종합적인 조화는 새로운 소재로 창작된 의상의 출현을 가져왔다. 베르사체의 소재에 대한 변화시도는 계속적으로 보여지지만, 기존의 소재들이 좀 더 연구되어 더 좋은 장점이 부각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는 시스루 소재로 여성만이 갖는 가치를 최대한 발휘시키도록 창출하여 이를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미를 부여하였다. 시스루 소재 뿐 만 아니라 망사나 그물을 통해서도 시스루 소재로 표현되는 관능미를 표현하였다 <그림 9>.<sup>11)</sup> 베르사체는 새로운 섬유소재 개발에 있어 창작자이기도 한데, 소재의 특성을 살리고 금속이나 비닐 재질을 겹으로 썬워 말하는 빛의 효과 등의 새로운 요소의 가미나 의외적인 사용으로 다양한 충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장인으로서의 예술성과 테크닉의 종합적인 조화는 새로운 패션 소재의 의상을 출현시켰다.



<그림 7> 1992-93 F/W  
(출처: Versace Signature, 1992, p. 143)



<그림 8> 1991 S/S  
(출처: Versace Signature, 1992, p.160)



<그림 9> 1996 S/S  
(출처: Gianni Versace, 1998, p.123)

### 3. 도나텔라 베르사체의 패션

도나텔라 베르사체(Donatella Versace) <그림 10>는 1955년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Calabria)에서 출생하였으며, 지아니, 산토와 함께 성장하였다. 지아니 베르사체보다 10살 어린 도나텔라는 어려서부터 패션에 몰두한 오빠의 모델이며 뮤즈였다. 그녀는 1978년 베르사체 회사 설립 이후 홍보 업무를 맡게 되었고, 1980년대 향수 브랜드 출시와 세컨드 레이블인 베르수스(Versus) 브랜드에 관여하였다. 도나텔라는 베르사체 초창기 시절부터 사진 광고를 통해 베르사체 스타일 홍보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액세서리 컬렉션 디자인부터 시작해 93년부터 직접 베르수스 라인을 디자인해 왔다. 피렌체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그녀는 졸업 전부터 이미 회사의 모든 결정에 참여하였고, 아동복인 영 베르사체(Young Versace)를 비롯한 라이센스 사업과 액세서리 컬렉션을 맡아왔으며, 그녀가 주도했던 사진 캠페인은 베르사체 스타일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1997년 지아니 베르사체의 사망 이후, 도나텔라는 베르사체 패밀리의 디자인하우스를 계승하였고, 사후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기성복 컬렉션을 선보였으며 패션계에서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1998년 봄 솔로 데뷔전을, 7월 파리에서 베르사체 아틀리에를 위한 첫 쿠티르 쇼를 무대에 올렸으며, 명실상부한 성공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sup>12)</sup> 그녀는 계속된 적자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의 청사진으로 메두사 심볼을 컬렉션 라인에만 사용하여 컬렉션의 기본 정신을 되돌리는 등 컬렉션 라인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 주얼리, 향수 등 불필요한 부분을 라이센스로 전환하고 액세서리 라인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패션에만 국한되지 않고 각종 인테리어와 홈웨어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베르사체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sup>13)</sup> 호주 골드코스트의 아름다운 해변에 팔라조 베르사체 호텔(Palazzo Versace Hotel) <그림 11>을 건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르사체만의 차별화된 컨셉으로 디자인된 전용 체트기, 요트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진정한 베르사체의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해 가고 있다.<sup>14)</sup>

컨셉에 있어서도 뇌쇄적인 관능미에 치중했던 컬렉션에서 평상복을 통해 현실성있는 스타일링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소 차분해지고 웨어러블하게 바뀌고 있다. 그녀는 섹시함과 함께 우아하고 정제된 럭셔리한 이미지를 담은 섹시 엘레강스룩(sexy elegance look)을 탄생시킴으로써, 베르사체 고유의 섹시함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성과 세련된 우아함을 부각시킨 새로운 베르사체를 창출해내고 있다. 지아니의 여신 이미지와 메두사 로고를 계속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과장된 대비와 반복적인 배치보다는 간결한 드레이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간결하고 단순함을 추구하여 절제된 쉬크함을 나타낸다. 디테일의 사용에 있어서 지아니의 과감하고 대조적, 대비적이었

던 장식의 사용이 도나텔라에 와서는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끈 장식, 러플 등의 주름 장식으로 사용되었고, 소재에 있어서도 부드러운 쉬폰 소재를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코르셋 형태, 다양한 실루엣과 노출의 실험, 바디 컨셔스 라인 등을 선보였으며, 가죽, 신축성 있는 저지, 시스루, 새틴, 글리터리 소재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베르사체 특유의 관능적인 섹시함을 잘 표현해내고 있다. 색채나 소재의 패턴, 액세서리의 활용에 있어서 이국적이고 원시적인 요소를 사용했던 경향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도나텔라는 이러한 에스닉한 경향을 이어감에 있어 원시주의적인 아프리카 문양의 색채, 소재를 활용하였으며, 인도풍의 장식, 얇고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섬세하고 날카로운 감각의 비율과 맵시, 특유의 패널 무늬와 자수, 심플한 라인에서 더욱 강조되는 고체도의 화려한 컬러 프린트를 정교한 재단과 세련된 안목으로 베르사체만의 대표 이미지를 활력있고도 우아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림 10> 도나텔라 베르사체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11> 팔라조 베르사체 호텔  
(출처: <http://www.naver.com>)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범위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는 잡지, 문헌자료, 선행연구 등을 통해 지아니 베르사체와 그의 디자인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베르사체 작품을 대상으로 그 색채 특성에 관해 조사, 분석하였다. 색채 자료는 패션 정보기관인 퍼스트뷰코리아와 동아TV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은 먼셀의 색상환과 ISCC-NBS의 톤 분류법을 사용하였다.

##### 1) 먼셀 색체계 및 ISCC-NBS의 톤 분류

먼셀의 색체계는 기본 5색인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를 각각 R, Y, G, B, P로 표기하고, 중간색인 주황, 연두, 청록, 남색, 자주를 YR, GY, BG, PB, RP로 표시한다. 검정은 [0], 하양은 [10]으로 표시하여 11단계의 명도 단계를 만들었고, 0-3도 사이를 [저명도], 4-6도 사이를 [중명도], 7-10도 사이를 [고명도]라 부르며, 채도는 색의 순도가 증가함에 따라 1에서 14까지의 숫자를 대응시킨다. 톤(tone)은 ‘색조’를 의미하고, ‘ISCC - NBS’ 체계에서는 같은 색상면에서 명도는 light, very light, dark, very dark로, 채도는 strong, vivid와 grayish로 나타낸다. 또한 명

도와 채도가 다 같이 높은 부분은 brilliant, 다 같이 낮은 부분은 deep으로 나타내고, 그 외에 pale, light grayish, dark grayish, blackish 등으로 나타낸다.

## 2. 자료 수집


베르사체 작품의 대표색 추출은 퍼스트뷰코리아와 동아TV의 이미지 자료로 각 컬렉션에 나타난 베르사체 작품들 중에서 측색에 어려움이 있는 복잡한 패턴이나 그라데이션 작품 등을 제외한 총 848작품 중에서 344개 색으로 <표 1-2>, 컬렉션 사진을 .jpg 형식으로 저장한 후 Photoshop (ver.7.0)프로그램에서 아이드로퍼 툴(eyedropper tool)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이 대표색을 컬러칩으로 만들어 RGB값을 구하였으며 이렇게 구해진 RGB값을 Munsell Conversion System (ver. 7.0.1)을 이용하여 HV/C값으로 치환하고, 이렇게 치환된 값을 기준으로 연도별, 시즌별, 색상별, 색조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작품 수

	style 수	color chip 수
00 S/S	65	15
00 F/W	68	35
01 S/S	60	12
01 F/W	65	21
02 S/S	65	20
02 F/W	67	20
03 S/S	65	37
03 F/W	53	28
04 S/S	59	25
04 F/W	55	19
05 S/S	54	25
05 F/W	57	26
06 S/S	60	36
06 F/W	55	25
Total	848	344



<표 2> 베르사체 컬렉션 시즌별 의상의 예

			
00 S/S		00 F/W	
			
01 S/S		01 F/W	
			
02 S/S		02 F/W	
			
03 S/S		03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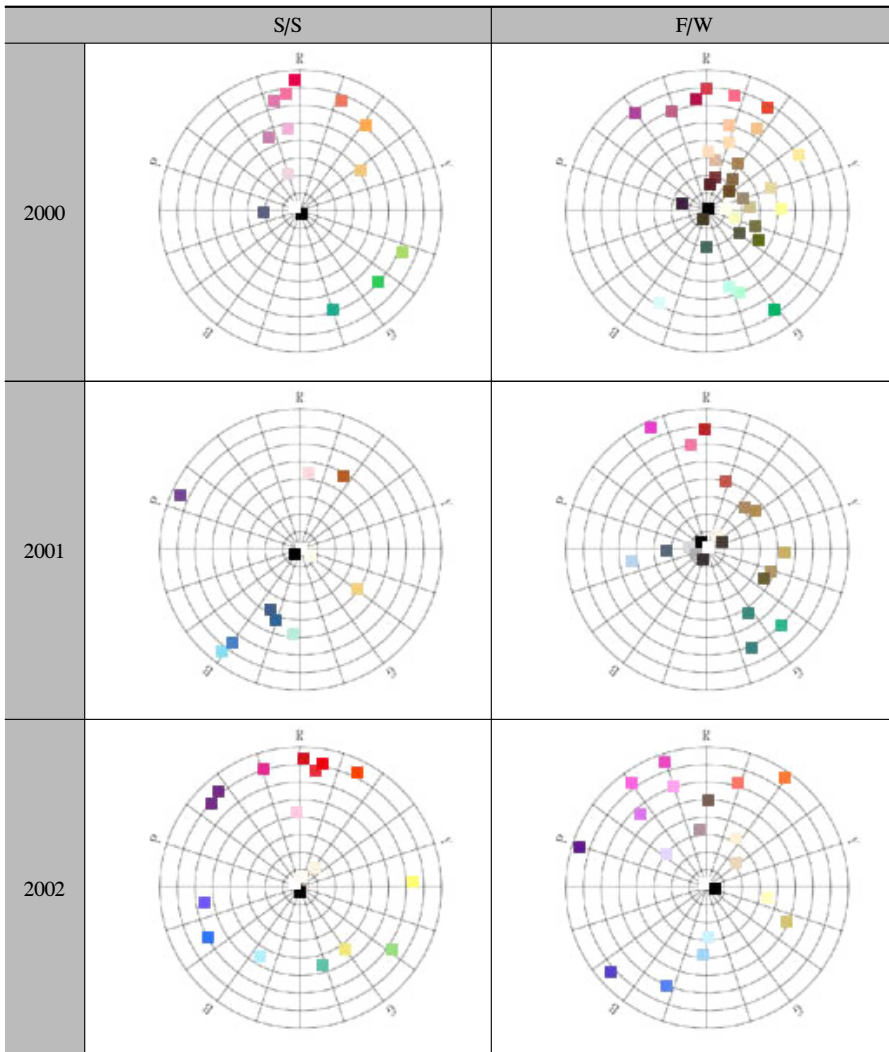
#### IV. 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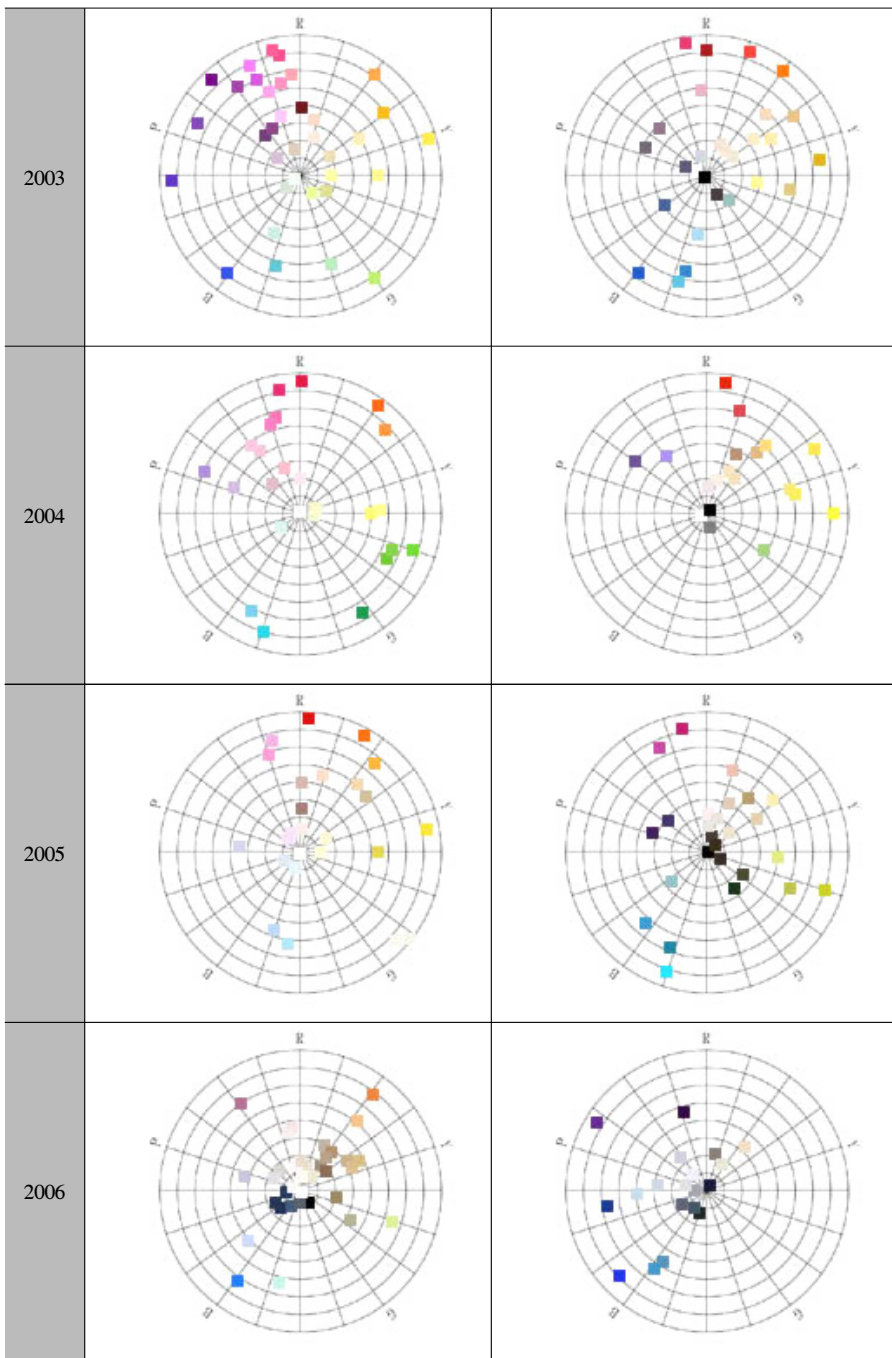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도나텔라 베르사체에 의해 계승된 베르사체 컬렉션의 색채 특성을 시즌별, 연도별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색채 특성과 색조 특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색채 특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베르사체의 색채는 전반에 걸쳐 분포하며, 특히 검은색에 대한 꾸준한 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시즌의 트렌드 컬러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는 것으로 보여 진다.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는 R계열과 P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Y계열이, 그 다음으로는 B계열과 G계열이 비슷한 빈도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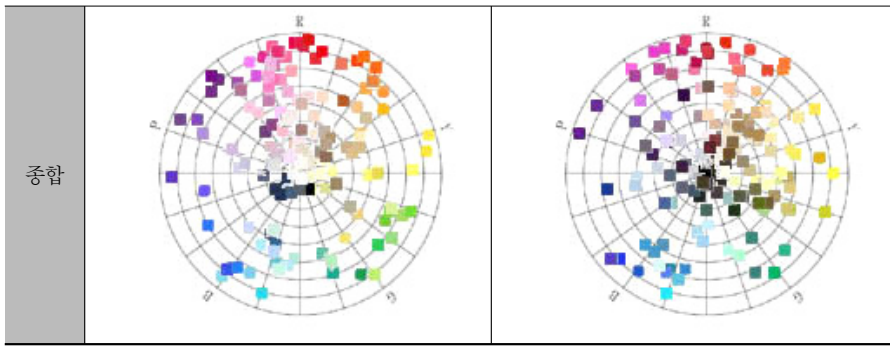
나타내었다. R계열과 P계열의 강세는 베르사체가 정열적인 빨강색을 선호했던 것과 2000년대 초반 트렌드 컬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시즌별 색채 특성에서도 역시 R 계열이 전 시즌에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S/S 시즌에는 P계열과 G계열이, F/W시즌에는 Y계열과 B계열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무채색인 black과 white컬러를 특히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 중 black컬러는 전 시즌 컬렉션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 지아니 베르사체 역시 모든 컬렉션에서 black컬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그가 가진 검은 드레스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가 죽고 난 후인 2000년 이후의 베르사체 컬렉션에서도 black 컬러는 도나텔라 베르사체에 의해 여전히 지속적으로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었다.

<표 3> 베르사체 컬렉션에 나타난 시즌별 색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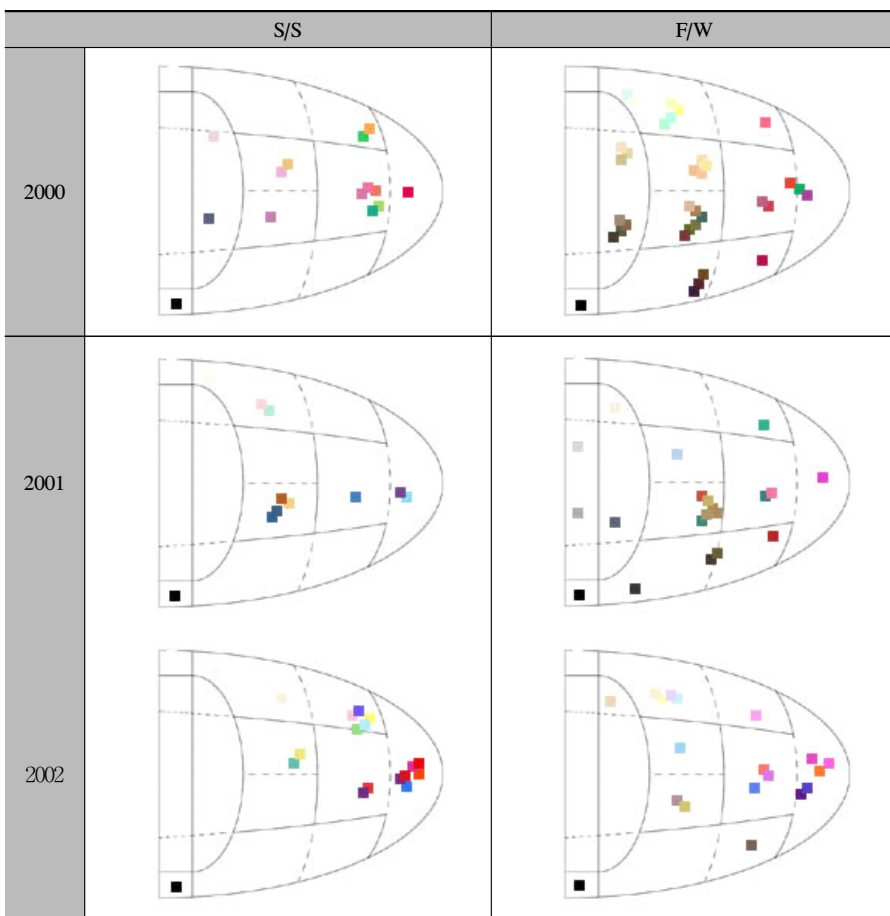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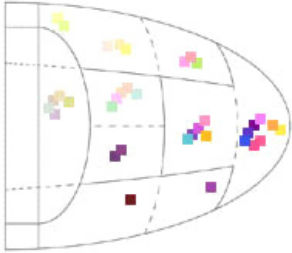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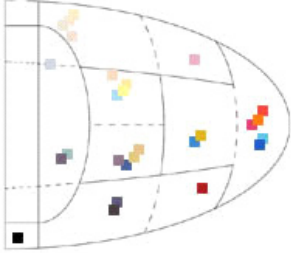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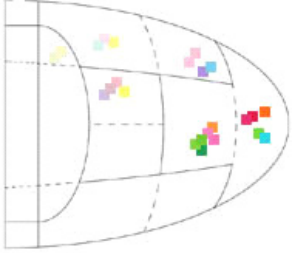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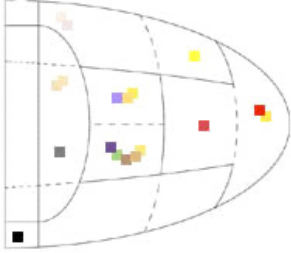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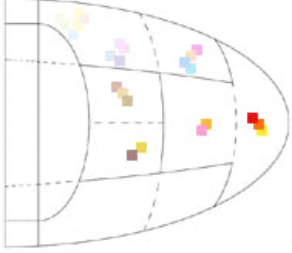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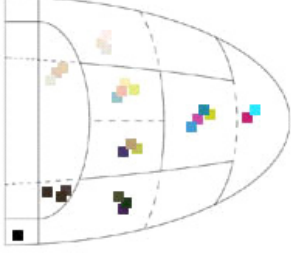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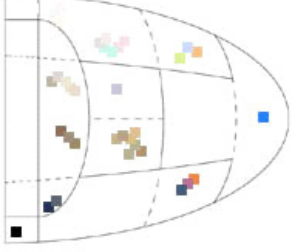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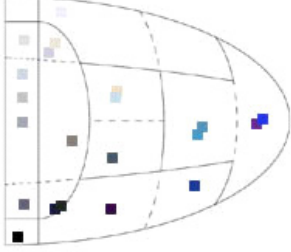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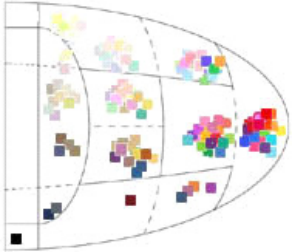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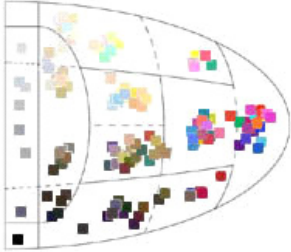






<표 4> 베르사체 컬렉션에 나타난 시즌별 색조(tone)



2003		
2004		
2005		
2006		
종합		

다음으로, 색조 특성은 유채색도가 높으며 **vivid, strong** 그룹과 같은 화려한 색조가 가장 많이 분포한다. 이는 과거부터 강렬하고 원색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성적관능미를 대담하게 표현했던 베르사체의 디자인 정신이 2000년 이후 컬렉션에서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2005년 이후부터 화려한 색조의 비율은 줄기 시작해서 2006년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는 **black**과 **grayish** 계열, 그리고 **gold** 컬러가 강세를 이룬 2006년 컬러 트렌드의 영향으로 보여 진다. 또한, 베르사체 컬렉션에서 무채색의 **gray** 계열은 2001년 F/W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시즌별 색조특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S/S시즌에는 밝은 색조(**bright, pale, very pale** 그룹)의 분포도가 높고, **black**을 제외한 어두운 색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F/W시즌에는 수수한 색조(**light gray, light, gray, dull** 그룹)와 어두운 색조(**deep, dark, dark gray** 그룹)의 분포가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즌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연도별로는, 2000년에는 R계열과 P계열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S/S에는 G계열이, F/W에는 Y계열이 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2001년에는 **dull**한 컬러가 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S/S에는 B계열이, F/W에는 B계열과 YR계열, 그리고 **grayish**한 컬러가 주를 이룬다. 2002년에는 다시 R계열과 P계열의 비중이 커지면서 많은 **vivid**한 컬러가 나타나는데, 이 컬러들은 복잡한 패턴으로 서로 혼용되거나 그라데이션 되어 어울리면서 그 화려함을 더한다. 2003년에는 그 컬러의 화려함이 극에 달하는 듯 보이는데, 화려한 색조의 컬러에 부드러운 느낌의 색조가 함께 어우러져서 베르사체의 열정적이면서도 은밀한 관능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디자인 세계를 잘 나타내는 듯하다. S/S 시즌에는 **pale**한 그룹으로 화려하면서도 좀 더 여성스럽고 섬세하며 부드러운 느낌을 나타냈으며, F/W에는 **dull**한 컬러그룹으로 좀 더 차분하고 깊이가 있음을 표현하였다. 2004년에는 Y계열이 강세를 이루는데 S/S에는 GY계열로 좀 더 산뜻하게, F/W에는 좀 더 톤 다운 된 Y계열과 YR그룹을 사용하여 계절적인 분위기를 살려주었다. 2005년에는 **vivid**한 컬러그룹이 포인트 정도로만 활용되고 S/S에는 **pale**한 그룹의 RP계열과 YR계열, B계열 등이, F/W에는 **deep**한 그룹의 B계열과 P계열이 주를 이룬다. 2006년에는 **vivid** 그룹이 거의 사라지고 **goldish**한 YR계열의 컬러가 많아졌으며, **black**에 가까울 정도로 **dark**한 B계열과 G계열의 비중이 커졌다.

## V. 결론

2000-2006년까지 밀라노 컬렉션에 나타난 베르사체의 컬렉션에서 추출된 총 344개의 색을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르사체의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를 분석한 결과 R계열과 P계열이, 색조에서는 유채색도가 높은 **vivid, strong** 그룹이 많이 분포하였다. 또한, S/S 시즌에는 G계열과 밝은 색조 그룹이, 그리고 F/W 시즌에는 Y계열과 어두운 색조 그룹이 좀 더 많이 사용되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화려한 색조의 원색 컬러들이 서로 혼용되고 보색을 이루면서 대담하게 쓰여 지나, 2005년 이후 부터는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둡고 차분한 컬러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는 검정색 계열의 무채색이 트렌드 컬러로 오면서 나타난 색채 경향이었다. 베르사체는 이러한 어두운 컬러들에 유채색도가 높은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면서 고유의 색채특성을 이어나 갔다.

도나텔라 베르사체는 과거 검은색을 선호하며 선명하고 화려한 컬러를 열정적으로 사용했던 지아니 베르사체

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무채색과 원색, 특히 강렬한 레드와 퍼플을 조화시켜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베르사체만의 강렬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만들어 냈다. 블랙컬러의 단독사용으로 우아함과 쉬크함, 관능미를 표현하였으며,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 생명력있는 컬러들과 메탈릭 컬러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였다. 도나텔라는 과거 베르사체 특유의 색채 경향성을 이어가면서도 매 시즌의 트렌드 컬러를 수용, 적절히 조화시켜 과거보다는 좀 더 절제된 아름다움을 한층 감각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색채로 선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색채 미술사라 불리우는 지아니 베르사체의 색채 특성에 대하여 고찰한 뒤, 현재의 베르사체 디자인의 색채경향을 분석하였다. 현란한 원색과 무늬로 이루어진 독창적인 베르사체의 색채미술은 오늘날 색채 기획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베르사체의 명맥을 이어받아 지속시키는 것은 패션산업의 진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색채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가 베르사체의 색채조화와 배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보다 더 창의적인 색채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색채 수집을 위해 패션정보지 website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사진자료로 색을 추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대 조명의 영향으로 같은 의상이라 할지라도 색이 다르게 찍힌 경우가 있어 그 본래 색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진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의상의 색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베르사체 작품에는 메탈릭 컬러나 금속 장식이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포토샵 작업으로는 그 색 값이 추출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 참고문헌

- 1) 이원미 (2008). 베르사체 패션에 나타난 색슈얼리티의 미적특성 -도나텔라 베르사체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 2) 박기천 (2004). 지아니 베르사체 디자인에 나타난 그리스 신화적 이미지,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 3) 허준 (1994).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미를 현대화시키는 신고전주의자, 지아니 베르사체, ELLE Korea, p.20.
- 4) Richard Martin, 박기완 역 (2002). Versace, 부산: 노라노, pp.73-75.
- 5) 이세영 (2005). 실내공간에서 나타나는 Sexuality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31-248.
- 6) 광보운 (1999).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 7) Richard Martin (1998). Gianni Versac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Abrams, p.9.
- 8) 광보운 (1999). 앞의 논문, p.28.
- 9) 김정혜 (2005). 패션이 사랑한 미술, 경기: 아트북스, p.6.
- 10) 광보운 (1999). 앞의 논문, p.31.
- 11) 광보운 (1999). 앞의 논문, p.48.
- 12) 위키피디아(검색어: Versace), 자료검색일 2009, 5, 20, <http://www.wikipedia.org>
- 13) 위키피디아(검색어: Versace), 자료검색일 2009, 6, 3, <http://www.wikipedia.org>
- 14) 이원미 (2008). 앞의 논문, pp.30-31.